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1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음 5월 4일) 제157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서남대 의대 폐과 결정

구 재단, '대학 정상화 방안' 교육부에 제출 대학, 2018년부터 아산캠퍼스 중심으로 운영 남원캠퍼스는 평생교육원만 운영될 처지

서남대의대가 폐과 수순을 밟게 됐다.

서남대 구 재단 측은 '서남대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서남대 의과대학을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서남대 구 재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지난해 8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 등급을 받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소속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서남대 구 재단 측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재정기여자 영입을 추진했으나 별 다른 성과가 없자 서남대의대를 폐교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이로써 서남대는 2018년부터 아산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이 운영되며 남원캠퍼스는 평생교육원만 운영될 처지에 놓였다.

또한 녹십자병원과 남광병원, 남원병원, 구 광주예술대 건물 및 수익용

재산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서남대 구 재단은 서남대·한려대·신경대·광양보건대 중 한려대를 자진폐교하고 횡령금 330억 원을 보전하기로 했다.

폐교되는 한려대 재학생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교육여건이 좋은 타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 구 재단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거친 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컨설팅을 통해 정상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서남대 정상화 방안은 부실대학 폐교의 신평안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등급을 차지하는 대학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의회 정례회 개최 7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 송해진 도지사과 김승환 교육감, 도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요원·장비 확대

정부, 합동점검반 구성 현장 실태 등 살피기로

정부가 오는 22일까지 중앙·지자체·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물놀이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확정하고, 올 여름 물놀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물놀이 장소 4,749개소를 대상으로 1차 점검을 벌여 안전시설 구비와 안전관리 요원 확보 여부, 시설·기구 안전성 등을 살피한다.

이어 6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차 표본조사를 실시해 1차 점검지역 지

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더불어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재차 확인하고 물놀이 안전에 누수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물놀이 위험구역 385개소, 안전사고 우려지역 43개소 등에는 출입 통제 경고표지판 부착과 함께 취약시간 현장순찰을 강화한다.

물놀이 관리지역에는 안전감시원, 자원봉사자 등 7,948명을 배치한다. 112개 해수욕장 등 전국 주요 물놀이장소 320곳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 8,578명을 선발·배치,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태세를 강화한다.

해수욕장에는 지자체 안전요원과 인

명구조선 등 안전장비를 전년 대비 확대 배치한다. 해경에서는 주요 해수욕장에 약 350명을 투입해 수상 오토바이 등을 통해 긴급출동 및 해상구조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모든 안전관리요원은 인명구조, 장비사용, 심폐소생술 등 체험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물놀이 장소로 이용되는 해변 59곳 중 해수욕장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속히 해수욕장으로 지정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를 이행토록 했다. 그 외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영수 기자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법령에 맞게 운영을"

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구)가 7일 제9차 회의에서 집행부 및 주민·참고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그동안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는 폐촉법 등 상위법령 범위 밖의 규정들이 협약서 등으로 규정돼 운영되면서 비롯됐다"며 "시는 적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과 협의를 통한 개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주민지원기금 지원의 기준이 되는 반입수수료 문제와 편법이 반복되고 있는 운영비 운용 문제, 주민감시요원 적정 수 여부 및 소각장 운영 변동비 수의계약 문제,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리사이클링타운 공기 연장의 타당성 검토 등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완구 위원장은 "수년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적법하지 못한 관행적 시스템에서 반복적인 감동만을 야기해 왔다"며 "이번 특위조사 활동을 통하여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내고 변화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전주시 청소행정정 전기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 재개해야"

전북시장군수협 촉구

전북시장·군수협의회가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진식 감제시장)는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북도민들은 한국은행이 6월 1일부터 5대 광역본부에 이어 인천본부와 강원본부의 화폐수급 업무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성이 대두된 전북본부를 배제한 데 대해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며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재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2012년 한국은행 지방조직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 아래 전북본부가 담당하고 있던 화폐수급업무 광역본부로 통·폐합, 전북의 금융기관들은 화폐수급 거래를 위해 80~100km 떨어진 광주전남 본부와 대전충남 본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원거리 화폐수송에 따른 막대한 비용발생, 화폐 매입과 신권서비스 제공 등 고객서비스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인천, 경기, 충청, 호남을 통틀어 유일한 서부권역 지방은행(금융지주사)이 소재한 전북은 수많은 지역기업과 금융기관의 화폐수급 2차 공급처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원활한 화폐수급이 어려워 금융기관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전북혁신도시 이전과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전북도민들의 먹거리가 될 금융 산업,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전북도민의 자존감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는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전북지역 금융사무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월 전주사무소를 전주지원으로 승격시켜 주요 금융기관의 검사감독 권한을 강화한 데 이어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금융산업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활한 화폐수급업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재 기자

▶ 매일 INDEX
3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6면 건설인력공급업체 인건비 전가에 반발

**흥미진진한
임실체험 속으로
GOGOGO!**

- 키우GO!** 임실청소년수련원 - 클라이밍체험
- 배우GO!** 임실영어마을 - 임실영어체험학습
- 느끼GO!** 119 소방안전체험관 - 소방훈련체험
- 놀이GO!** 임실치즈테마파크 - 치즈만들기체험

임실군 임실읍